

## 마테오 리치의 무덤:

### 예수회의 초기 중국선교과정에서 건축사업의 의의

서정일\*

#### 【요약】

16세기 말 17세기 초 예수회의 초기중국선교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적응'과정이 어떠한 구체적 '환경'에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이 글은 선교과정에 수행된 건축사업의 목적과 건축적 내용을 해석한다. 우선, 선교사들이 중국본토에 마련한 거처는 생존과 선교의 거점이자 기독교 사상과 가치의 재현물로서 중요했다. 선교사들은 중국인이 기독교를 수용한 태도에 반응하여 자신들의 거처의 입지, 규모, 집 안팎의 꾸밈을 정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의도를 신중하게 드러내고 또한 감추었다. 또한, 1610년 마테오 리치 신부가 사망했을 때 선교사들은 마테오 리치 신부의 묘원을 북경에 조성할 수 있도록 명 만력제로부터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세심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부성문 바깥에 중국본토에 최초의 선교사 무덤을 공식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 이 업적을 중국선교의 중요업적으로 간주하여 유럽에 자세히 보고한 문헌을 살펴보면, 니콜로 롱고바르도 신부가 주도한 그 묘원 설계에서 유럽전통의 장묘성당을 제대로 구현하려 한 적극적 의도를 찾아 읽을 수 있다. 이 사업내용은 또한 예수회의 선교활동의 정책 변화를 드러내며, 훗날 마침내 중국 본토에 짓게 되는 유럽식 성당을 예고하는 동시에 적응주의 정책을 둘러싼 이후의 긴 갈등을 예고한다.

【주제어】 예수회, 선교, 환경, 적응정책, 마테오 리치, 니콜로 롱고바르도, 묘지, 성당

---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학국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6).

## I. 들어가며

『기독교 중국원정』(De Christiana expeditione apud Sinas suscepta ab Societate Jesu, 1615)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예수회가 중국에서 추진한 선교사업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선교를 위해 중국에 머문 두 명의 예수회 신부, 즉,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와 니콜라스 트리고(Nicolas Trigault, 1577~1628)가 쓴 총 5권 분량의 이 책은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중국선교를 개시한 내력부터 마테오 리치가 죽기까지 그의 주요한 선교 활동의 내용을 유럽에 알린 보고서다.<sup>1)</sup> 이 책에는 선교활동의 하이라이트 내지 최종성과가 제5권의 마지막 장인 21장



[그림-3] 『기독교 중국원정』(1615년에 초판 출간)의 표지 그림. 중국선교의 양대 기둥으로서 왼쪽 대좌 위에 프란시스 하비에르를, 오른쪽 대좌 위에 마테오 리치를 묘사했다.

1) 이 책의 4, 5권 네 개 장 이외의 내용은 리치가 이탈리아어로 써서 남긴 원고를 트리고가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1615년 독일 아우스부르크(Ausburg) 대학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이 대학 도서관으로부터 경성제국대학도서관이 기증 받은 초판본이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어번역본과 중국어번역본으로부터 한글로 증역한 신진호·전미경 역, 『마테오 리치의 중국견문록』(문사철, 2011)이 출판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 인용한 『기독교 중국원정』의 텍스트는 주로 이 책에서 인용하되 부분 수정했음을 밝힌다. 이 한국어 번역본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각종의 건축용어들, 즉, 집(aedes), 예배소 내지 예배실(sacellum), 성당(templum) 등의 번역에 있어서는 큰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의 성격 및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E. 먼젤로, 이항만·장동진·정인재 역, 『진귀한 나라 중국』(나남, 2009), 제2장 71-123참고.

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가 마테오 리치에게 묘원을 하사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sup>2)</sup> 즉, 리치가 사망한 후 그의 묘역을 북경에 조성할 수 있도록 명의 만력제로부터 허락 받아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하사받은 일이 그 때까지 중국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선교성으로 다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의 거처와 성당(천주당) 같은 건축물을 마련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중요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건축물들은 선교활동의 일차적 '환경'으로 작용했다. "더 이상 길거리나 사장 같은 옥외에서 신앙을 설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sup>3)</sup> 중국의 예수회선교사들에게 그들의 거처는 제례와 설교를 행하는 장소로서 필수적이었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중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그 환경조성사업은 여러모로 고심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마테오 리치 자신이 동서양 건축을 비교하며 서양의 건축술이 중국의 것보다 외관이나 내구성에서 대개 우월하다고 인식했는데,<sup>4)</sup> 그가 서양을 소개하기 위해 중국에 전한 서양문물—천문기기, 자명종, 세계지도 등과 기독교사상을 비롯한 각종 서양서적의 번역물—에는 서양의 건축술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리치는 서양의 도시 모습을 담은 그림들과 건축물의 도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할지 고려하면서 그들의 거처의 성격을 신중하게 다루었다.

예수회가 중국에서 전개한 선교활동과 문명교류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건축사업은 그 밖의 활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것이 사실인데,

2) 5권 21장의 제목은 "P. Matthao Riccio ab Rege sepultura, Nostris aedes sacra et profana designatur"다.

3) 황종렬,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선교의 신학적 의의와 한계」, 『교회사 연구』 20 (2003), 193.

4) 『기독교 중국원정』, 1권 4장을 볼 것. 한편 리치는 3권 10장에서 남경의 건축과 도시가 유럽에 비해 손색없으며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고도 서술했다.

이 건축물들의 상당수가 20세기에 의해 소실되었거니와 복원시 원형을 상실한 것이 그 부분적 이유였을 것이다(특히 북경의 리치 무덤은 20세기에 훼손되고 복원된 과정에서 『기독교 중국원정』에 기술된 원래 모습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예수회의 초기 중국선교과정의 적응과정, 특히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로 흔히 이해되고 있는 제반 선교활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선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활동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그 안에서 수행되는 더욱 명료한 활동들, 즉, 언어적 실행과 저술 등에 대해서 일종의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주로 리치와 관련된 초기 선교과정의 건축사업들의 내용들을 추적하고 그것을 초기예수회선교활동의 적응과정과 연관하여 살핀다. 이 관점에서 그들의 집, 특히 마테오 리치의 무덤 조성사업의 목적, 건축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북경의 마테오 리치 묘지가 어떠한 건축적 내용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도 리치가 중국 본토에 들어온 뒤 여러 도시를 거치며 머무른 거처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우선 이 거처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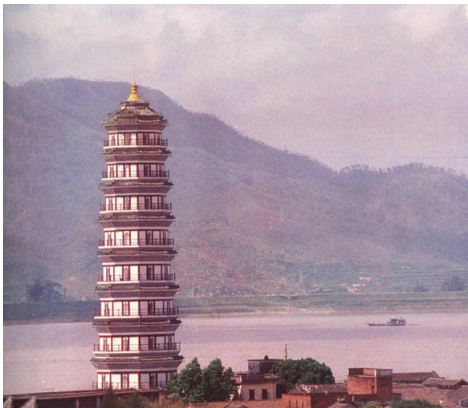
## II. 조경(肇慶)에서 북경(北京)까지 선교 거처의 설립과정

초기 선교과정에서 선교사들에게는 명 조정이 자신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중국본토에 진입하여 무사히 정착하는 것 자체가 시급하고 중요한 일차 목표였다. 1582년이 되어서야 마카오에 머물던 두 선교사가 광둥광서 양광총독(兩廣總督) 진서(陳瑞)의 초청을 받아 중국 본토인 조경(肇慶)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때 선교사들은 도시에 거주하고 예배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까지 얻어냈고,<sup>5)</sup> 결국 무효화되었지만

5) "Patres enim auctoritate publica vacabantur, ut aedem utramq; sacram &

광주(廣州)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유지 양도증서까지 받아 냈다. 선교사들이 광주 해도에게 보낸 청원서에는 이후 마테오 리치의 무덤 조성에 이르기까지 초기선교사들이 추구한 사업의 공식목적이 잘 나타나 있었다. 즉,

그들은 천주교 수도회의 일원으로서, 바다 건너 먼 유럽에서 태어나 중화문명을 흠모하여 중국의 순민(順民)이 되길 소망하며 바라건대 작은 땅이라도 작은 집(aedicula)을 지어 천제(天帝)에게 바치게 해달라고 적었다. 또한 그들이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자국민의 도움으로 생활을 영위할 것임을 편지에 밝혔다. 기독교 교리를 어떤 식으로 전파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중국에 영구정착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sup>6)</sup>.



[그림-2] 예수회 선교사들은 조경(肇慶)의 송희탑(崇禧塔) 근처에 중국본토의 첫 거처인 선화사(櫻花寺)를 마련했다.

선교사들이 원하던 대로 중국 본토에 처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곳은 양광총독부 소재지인 조경(肇慶)이었다. 선교사 루지에리(Michele Ruggieri)와 리치가 1583년 9월 조경에 도착해서 조경 지부(知府) 왕반(王泮)을 만나 "살기 위한 소박한 집과 천주를 모실 소당을 짓도록 허가해 주기를 부탁했고", (『기독교 중국원정』 2권 4장) 그들은 서강(西江)변에 송희탑(崇禧塔)이 지어지고 있던 일대의 땅을 할당받아 건물을 지었다.

이때까지도 선교사들은 광주와 조경에서 숙소 외에 천주에게 예배드릴 목적에

privatam ea in urbe excitarent."(『기독교 중국원정』, 2권 3장)

6) 『기독교 중국원정』, 2권 3장.

전적으로 부합하는 성당(templum)을 건립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이 확인된다.<sup>7)</sup> 하지만 선교사들은 거창한 건물을 짓는 것을 피했는데, 눈에 띄는 이방적인 건물을 지을 경우 중국인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될까봐 우려했다. 그들은 집을 2층으로 올리는 것까지도 처음에는 망설였다. 즉, "마카오 공학의 원장은 2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전해 왔는데, 중국백성들이 건물을 보고 우리가 보루를 쌓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기독교 중국원정』 2권 4장) 그 1층짜리 거처의 중앙에는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두 칸씩 방을 두었는데 대청에는 제단을 설치하고 성화(聖畫)를 걸어 예배의 중심공간을 마련했다. 선교사들은 성화의 내용까지도 중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했는데, 피 흘리는 십자가상의 사실적 표현을 정서상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뒤에는 그것을 쉽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제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성모가 예수를 안은 그림을 걸었다. 신부들은 '천주' 두 글자를 써서 하나님의 호칭으로 삼았다 [...] 머지않아 신부들은 이 그림을 구세주상으로 바꾸었다. 한 가지 이유는 천주교가 숭배하는 신이 여인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천주강생의 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sup>8)</sup>

선교사들은 지부가 편액 두 점을 하사한 것을 받아 들였는데, 그 중 '선화사'(懣花寺)라는 편액은 대문에, '서래정토'(西來淨土)라는 편액은 대청 중앙에 걸었다.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이 '적응'해 나아간 사례에 속하지만, 선교사들은 이후 "절을 하나 지을 비용"이나 되는 백은 6백 냥을 들여 조정의 거처를 서양식 2층 건물로 과감하게 개축하기도 했다(이 거처는 1589년에 폐쇄되었다).<sup>9)</sup>

7) "Designatus igitur in eo campo angulus ad aedem excitandam, qui cum angultus utrumque videretur ad aream templi & aedium explicandam." (『기독교 중국원정』, 2권 4장)

8) 『기독교 중국원정』, 2권 5장.

선교사들은 조정의 거처가 폐쇄된 뒤, 광둥 소주(韶州), 강서 남창(南昌), 남경, 북경을 차례로 거처며 거처 수를 모두 넷으로 늘렸는데, 매번 지방관리로부터 정주허가를 받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마음 졸여야 했다. 그들이 새 도시에 진입하여 거처를 마련한 소식은 마카오와 유럽에 속속 중계될 정도로 선교활동의 주요관심사였다.

선교사들은 거처를 위한 땅을 허가받아 마련하고 재정을 해결하는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건물의 기획, 건립, 운영에 이르는 여러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는데, 각 도시의 사정에 맞추어 건축사업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기독교 중국원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589년에 이주해 간 소주(韶州)에서는 마을 밖 강 서쪽의 광효사 옆 땅을 소주 지부로부터 제공 받아 거처를 마련했고, 그때부터 조정에서와 달리 건물을 아예 중국식으로 지었으니 이것은 더 조심스러운 태도의 결과였다.<sup>10)</sup> 다음으로 옮긴 남창(南昌)에서는 중국인의 집을 구입해서 거처로 썼고, 까다로움을 피해 아예 지부로부터 공문도 받지 않고 추진했다. 남경(南京)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피하던 공부관리의 빈 공관을 매입해서 들어갔고, 이곳에 중국인을 머무르게 하기도 했다.<sup>11)</sup> 최종적으로 북경에 입성했을 때에는 성 밖 사이관(四夷館)에 당분간 간헐 지내다가 성 안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황제로부터 윤허 받게 되었는데, 이로써 황제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정된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거니와 동시에 나머지 도시의 거처도 더 안정화되었다.

『기독교 중국원정』에서는 이상의 초기 거처들을 'domicilium, aedes(간혹 sacrae aedis), domus, tectum, sedes'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이나

9) 『기독교 중국원정』, 2권 12장, 14장.

10) 마테오 리치가 북상한 뒤 니콜로 롱고바르도(Niccolò Longobardo) 신부가 이 거처에 예배소(sacellum)를 고쳐 설치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롱고바르도 신부가 어떤 식으로 개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다.

11) 『기독교 중국원정』, 4권 8장.

당(堂)의 개념이 되, 성당(templum)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거처도 물론 천주교 의식에 이용하기 위해 "봉헌한" 건물이었다. 조정의 거처가 폐쇄되었을 때 리치가 총독에게 "숙소를 불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 때문이었지만 선교사들은 성당이란 용어를 쓸 경우, 전적으로 예배만을 위해 지어지는 독립되고 번듯한 건축물을 가리켰다.

한편, 『기독교 중국원정』 1권에 나타나 있는 불교에 대한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사들은 불교에 대한 기피감 내지 적대감이 뚜렷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거처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거처를 불교사찰에 마련하여 승려들과 같이 쓰라는 중국관리의 제안을 선교사들이 완강히 거부한 것도 실생활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사찰의 화려함과 불상들을 기피했기 때문이었다.<sup>12)</sup> 북경에 리치의 묘원을 조성했을 때도 불교 사찰로 쓰던 건축물에서 불상과 장식을 모조리 철거한 것도, 유교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던 불교에 대해 강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선교사들의 공격적 태도 때문이었다. 그 대신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사람들의 거주지 근처에 두려고 했고, 그래야만 고위관료와 문인들이 쉽게 드나들어 선교에 유리하다고 봤다.

이렇게 마련한 거처를 기독교의 공간으로 장식함에 있어서 그들은 주로 대청에 예배실을 마련하고 제단을 설치했으며 제단에 성상을 모셨다. 조정의 경험 이후 이 성상은 성모상이 아닌 구세주상이었고, 중국인들이 기피한 피 흘리는 십자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치는 거처의 방들에 그림, 시계, 유리도구, 그리고 중국어와 서양어로 된 서적들을 수집해서 진열함으로써 중국인 학자들의 호기심을 샀다. 한 마디로, 선교사들의 거처는 은신처이고 생활공간이자 새로운 문물의 전시장, 교리를 전하는 전교소, 천주를 모시는

12) 마테오 리치는 소주의 지주에게 불교 사찰은 선교사들이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도시에서 너무 먼데다가 교육 받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리치는 사찰에서 사는 사람들은 명예롭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별로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방식이 스님들의 생활 방식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기독교 중국원정』, 3권 1장)



예배당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 III. 북경 마테오 리치 묘역의 건립

#### 1. 북경 묘역의 건립경위

예수회의 공동창립자이자 아시아선교의 선구자이던 프란치스 하비에르 신부(Francis Xavier, 1506~52)는 16세기 중반 선교를 목적으로 중국 본토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의 유해는 광둥성 앞의 상천도(上川島)에 묻혔다가 이듬해에 인도의 고아(Goa)로 옮겨졌다. 『기독교 중국원정』에서는 중국선교와 관련된 하비에르 신부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비에르의 형제들은 그가 남긴 뜻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완수할 권리가 있었다. 하비에르의 시신이 아직 중국 변경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가 강력한 보루를 포위하듯, 요새를 점령하고 때가 되면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sup>13)</sup>

이 대목에도 드러나 있듯이 순교자의 유해와 그것을 안치한 장소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sup>14)</sup> 초기선교사들의 최종목적이 중국에 기독교를 뿌리내리는 것인 한, 이를 위해 중국 본토에 영구히 정착하는 것과 자신들의 뼈를 중국 땅에 묻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였다.<sup>15)</sup>

13) 『기독교 중국원정』, 2권 2장.

14) 하비에르는 『기독교 중국원정』이 출간된 후인 1619년에 시복되었고 1622년에 시성되었다.

15) 리치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다가 먼저 사망한 안토니오 알메이다 신부와 프란체스코 데 페트리스 신부는 중국본토에서 죽자마자 시신을 마카오로 옮겨야 했다. 『기독교 중국원정』에서는 이들을 마카오 묘지에 묻은 일이 "전투의 교회에 큰 효과를 가져다주었으니, 승리의 교회에 성인이 두 명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

북경에 선무문 천주당이 지어지기 이전에 예수회 선교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였던 리치의 무덤 건립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리치의 사망 후 북경에 남은 예수회 선교사들은 집요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명 만력제(萬曆帝, 재위 1572~1620)의 윤허를 받아 중국 본토에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유골을 1611년 북경 부성문 밖에 묻었는데, 선교사들은 이것을 '중국 천주교의 첫 번째 공식 묘지'로 간주했다.

그들은 이 사건의 의의를 기록하기를, "중국 선교구 창시자에게 내려진 이 영예로운 일이 중국 선교사업을 긍정한 것일 뿐 아니라, 황제와 관리들이 신부들의 새로운 거주지와 기독교사업에 대해 인가한 것은 그들이 이미 천주 교리에 찬성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천주의 도움으로 성사된 이 일"을 통해 동료 선교사들이 똑같은 권리로 중국 본토에 묻힐 권리가 마련되었고, 자신들의 시신을 남겨 중국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를 남길 것이라고 선교사들은 믿었다. 『기독교 중국원정』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중국 선교구의 창시자라는 사실과 그가 중국에서 죽고 중국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동료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리치보다 먼저 죽은 선교사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마카오에 묻혔다. 마카오도 중국의 섬이지만 중국 본토는 아니다. 따라서 바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서의 필자도 예외가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 자기 생명을 바칠 것이고 자기 시신을 이곳에 남겨 이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마테오 리치는 1600년(만력 28년) 12월, 디에고 판토하(Diego Pantoja) 신부 등 네 동료와 북경에 입성하여 황궁에 자명종을 바치고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북경에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북경입성 10년 뒤인 1610년 5월 11일에 리치가 죽자, 그를 위한 무덤 건립이 곧바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는데,

이 무덤의 조성과정은 『기독교 중국원정』 5권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인 학자 손원화(孫元化)가 이 일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가 리치 신부가 황제로부터 묘지를 하사받으면 중국에서 천주교회와 신앙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땅에 외국인 묘지를 쓰는 일은 드물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약했으므로 이것은 대담하고 야심찬 기획이었다. 손원화가 신부들과 논의하여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의 초안을 썼고, 이지조(李之藻)가 문장을 가다듬어 대리원장인 판토타 신부 명의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으며, 황제의 인가가 떨어지자 신부들이 엽대산 각로, 이지조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예부상서 오도남의 비준을 얻었고, 예부가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윤허를 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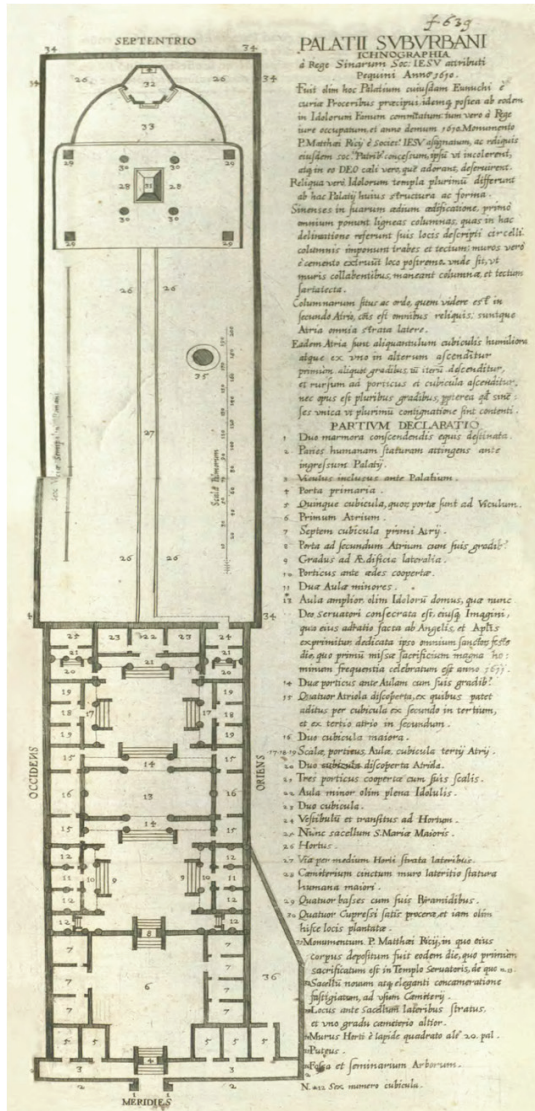
삼가 예부 명의로 간청하오니 예부에서 순천부윤[黃吉士]에게 통령을 내려 빈 사당과 마테오 리치를 묻을 땅을 물색하게 하옵소서. 빈 사당에 판토타와 동료들이 살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의 종법대로 천주를 숭배하고 폐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폐하의 자비하심이 망자를 포용하고 폐하의 은덕이 멀리서 온 이방인에게까지 내린다면 그 위대함이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폐하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만고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에 순천부윤이 부하관리를 시켜 최선의 자리를 고르게 했고, 부성문 밖 1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인 책란(柵欄)이 선택되었다. 이곳은 태감들이 묘지와 별장으로 쓰던 곳인데, 선택된 집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한 태감이 자신의 재산이던 별장을 지키려고 불법적으로 개인명목으로 절로 개조한 집이었다. 부윤이 이곳을 지키던 승려를 내 고 그 소유권을 판토타와 그 동료에게 넘기자, 태감이 동료태감들, 사례감, 황태후를 동원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신부들이 재산을 넘겨받고 토지세도 면제받게 된다.

## 2. 북경 묘역의 건축적 특징

『기독교 중국원정』에는 '교외저택'(Palatium Suburbanum)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체건물군의 배치평면도가 건물 각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실려 있다[그림-3]. 이 도면이 이 책에 실린 유일한 도판이었다는 사실은, 저자인 트리코가 이 건축사업의 구체성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묘원은 부성문(阜成門) 바깥에 있었고, 당시에도 지금처럼 부성문 바로 안쪽 큰길에는 역대제왕묘(歷代帝王廟)가, 성문 밖에는 근처에 월단(月壇)이 있었다. 20세기 초까지도 이 문 바깥지역은 지금처럼 시가화되어 있지 않았었고, 예수회 선교사의 묘원은 주변과 분리된 독립된 건물군으로 발전했다.



[그림-3] 마테오 리치 무덤, '교외 저택'(Palatium Suburbanum)의 배치평면.



[그림-4] 오늘날 마테오 리치 무덤의 전경.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왼쪽의 패루를 지나 들어가면 리치 무덤이 있다. 묘원조성당시 있었던 남쪽 건물은 소실되었다.

도면과 도면설명을 통해 원래의 건물군을 재구성해 보면 지금 남아 있는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림-4] 원래의 건물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뚜렷이 나뉘어 있었다. 남쪽에는 원래 절로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소실되어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북쪽에는 황제가 윤허했을 때도 없던, 새로 조성한 묘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원래 묘역의 범위는 폭 34~35미터, 남북 길이 약 174미터(남쪽영역

16) 현 주소로 북경 서성구 차공장대가로(西城區車公莊大街路)에 있다. 이곳에 마테오 리치 묘를 비롯하여 총 63기의 선교사 묘비가 남아 있다. 1900년에 의화단운동 때 묘지와 부속건물이 훼손,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청정부가 묘지를 중수했다. 이때 교회당도 새로 지었고, 그 바깥 담장에 77명의 묘비를 안치했다. 1950년대에 주변에 북경행정학원이 지어졌고, 문화대혁명 때에는 리치와 선교사들의 묘가 재차 훼손되었고, 교당도 철거되었는데, 이때 리치의 묘비가 땅 속에 묻혔다. 1984년에 묘지를 복원하면서동서 두 개의 묘원으로 나뉘어졌고, 묘원 주위에 벽돌 담장을 둘렀다. 동쪽 묘원에는 선교사 60위의 묘비를 모셨고, 서쪽 묘원에는 마테오 리치, 아담 샬,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88)의 묘와 묘비를 모셨다. 중수한 리치 묘 앞에는 "예수회사람 이공의 묘"(耶穌會士利公之墓)라고 적힌 2.7미터 높이의 묘비가 서 있다. 그 뒤에 높이 1.5미터, 길이 2.4미터, 폭 1.3미터의 벽돌조 무덤이 놓여 있다.

은 길이 약 77미터, 북쪽 영역은 길이 약 97미터)에 이르는 길쭉한 모양이다.<sup>17)</sup>

『기독교 중국원정』에 실린 도면에서 보듯이, 이미 지어져 있던 남쪽 거처는 길에서부터 북쪽으로 세 개의 안마당이 차례로 연결되어 있고 마당 주변으로 실들이 둘러 있는 사합원(四合院)이었다. 선교사들은 이 건물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내부의 실의 기능과 장식만을 바꾸어 사용했다. 선교사들은 이 집 일부를 개조해서 거처로 썼고 '공공의 집'(aedes publica)라고 불렀다. 여기에 중심 제단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요소로서 성모 제단을 놓았다. 이것 말고는 선교사들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해 왔던 거처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규모만 키워서 운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선교사들은 첫 거주지인 조경에서만 서양식 건물을 지어서 썼을 뿐, 이후 소주에서는 중국식 가옥을 짓거나 매입해서 사용했고, 약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의 전통가옥의 공간을 기독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새로 조성한 리치의 묘지는 매우 새롭고 독특한 형태였다. 이 영역은 거의 감추어져 있다시피 한데, 남쪽 건물군 안에서도 북동쪽 귀퉁이의 일부 공간이 입구가 되어 그곳을 거쳐야만 그 북쪽의 묘원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바깥에서는 돌로 된 담장 안의 묘지를 인식하기조차 힘들 수 있었을 테니, 건물 안팎으로부터 감추어지고 보호된 내밀한 성소와도 마찬가지로 지였다.

이 묘원의 설계는 니콜로 롱고바르도(Niccolò Longobardo, 1559~1654) 신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중국원정』은 이 묘지의 조성과정과 그 형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 묘원을 설계했는지에 대해서는, 또는 어떤 건축적 본보기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서 추정만 가능하다.

17) 도면에는 손바닥척(scala palmorum)으로 축척이 표시되어 있다. 1손바닥척(palmus)의 길이는 17세기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환산하면 211밀리미터다.

룽고마르도 신부의 지도로 중국 천주교의 첫 번째 공식 묘지가 설계되었다. 정원 한쪽에 둥근 지붕을 한 육각형 예배실(sacellum)을 지었다. 그 양쪽에 훗날 선교사들이 문힐 두 팔처럼 생긴 반원 모양의 담을 지었다. 화원 중앙에 측백나무 네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중국 풍속에서 애도의 뜻을 나타낸다. 그 위치가 아주 적당해서 마치 누군가 마테오 리치의 묘에 그늘을 드리우려고 심어놓은 것 같았다. 땅을 조금 파낸 다음 이곳에 벽돌을 이용하여 묘혈을 만들었다 [...] 분묘를 세우는 동시에, 이전의 절을 구세주 예수께 봉헌하는 성당으로 바꾸기 위해 몸쓸 것들을 한바탕 몰아냈다 [...] 사악한 신의 제단을 철거했고, 벽화도 덧칠했다. 제단을 새로 세우고 그 위에 구세주의 성상을 모셨는데, 이 성상은 예일성 수사가 그린 것으로서 매우 아름다웠다. 화려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위로 사방에서 호위하며 사도들이 아래로 양편에 서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었다 [...] 집수리를 마친 후 제성절(諸聖節)에 리치 신부를 매장하기로 정했다. 매장 후 집을 봉헌하기로 했다. 제성절 전야에 구세주의 화상을 금색 액자에 넣어 불상이 있던 곳에 놓았다. 진정한 신이 우상을 대체한 순간이었다. 제성절 당일 전체 교우들이 집에 와서 손에 초를 들고 유향을 태워 성대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미사를 먼저 거행했고 풍금으로 반주했다. 미사 후 리치 신부의 관을 집으로 운구했다 [...] 묘지로 가는 대열에 가장 신실한 교우들이 앞장서서 관을 메고 나머지 교우들은 울며 기도하며 그 뒤를 따라 긴 대열을 이루었다. 묘지에 도착하자 구세주 예수상을 그려 놓은 육각 소예배당 입구에 우선 관을 놓았다 [...] 공공의 집(aedes publica)과 육각형 장례예배실(sacellum funebris) 말고도 신부들은 성모를 위한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 [...] 성모 제단을 완성한 뒤 신부들은 대문에 흠사(欽賜, 천자가 내리심) 두 글자를 크게 써놓았다. 중국 교우들은 이 두 글자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sup>18)</sup>"

묘원 안에 리치의 무덤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뒤에 반원형 벽이 배경으로 둘러 있었으며, 그 벽 뒤에 후속 선교사들의 무덤이 놓였다. 리치의 무덤은 지금 남아 있는 것과는 달리 높이가 수 장(丈)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무덤 자체가 웅장했을 뿐 아니라, 측백나무 네 그루에 의해 호위되어 있었고, 무덤이 놓인 직사각형 영역의 네 꼭지점에 네 개의 오벨리스

18) 『기독교 중국원정』, 5권 21장.

크를 두어 무덤 영역을 기념비적으로 규정한 구성이었다.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이 묘원 전체가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기념비성을 띠었다. 전체 영역은 남북으로 길이 97미터, 폭은 약 35미터에 이르는 큰 공간이었다. 전체를 돌담으로 에워쌌는데 담의 높이는 20 손바닥척(palmus), 즉 4미터 가량이나 되어, 안팎을 서로 넘겨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었다.

남동쪽 모서리로를 통해 묘원에 들어서면 남북 축위에 신도(神道)가 길에 이어져 있었다. 신도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가며 리치의 장방형 묘혈(墓穴)이 나오고 그 뒤 가장 북쪽에 세 개의 아치문이 있는 육각 평면의 장례용 소예배당이 있었다. 이 구성은 규모와 형식면에서 성당의 평면을 연상시킨다. 비록 높은 벽과 지붕 등 상부구조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신도가 이어진 부분은 성당의 네이브(nave), 리치의 무덤 부분은 성당의 크로싱(crossing), 육각형 소예배당과 반원형 벽은 성당의 앱스(apse)에 대응하는 건축적 위상과 형태가 뚜렷이 읽힌다.

원래의 구성은 묘지가 훼손될 때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780년에 이곳을 방문한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간략히 묘사한 글에서도 리치의 '큰 버섯모양의' 무덤과 벽돌로 쌓은 '철로 만든 종 같은' 육각형 소예배당을 언급했다[부록을 참조할 것]. 연암의 이 글에서는 『기독교 중국원정』에서의 묘사와 다른 점도 발견된다. 즉, 세 칸짜리 돌패루(牌樓), 함께 묻힌 70여기의 서양선교사들의 무덤. 무덤 둘레의 높이 수 장(丈)에 이르는 담, 리치의 비석, 아담 샬의 기념비 등이 그것이다.("비석 앞에 또한 벽돌집이 있는데 그 위가 평평하여 돈대 같다. 구름 탄 용을 새긴 돌기둥들을 늘어 세워 석물로 삼았다 [象設]. 제사 지내는 전각이 있고, 그 앞에 또한 돌패루와 돌사자가 있다. 탕약망(湯若望)[아담 샬]의 기념비다.")

결국, 이 묘원의 형식은 중국의 전통적 묘지 형식과 서양의 묘지 형식의 요소의 기묘한 결합물이다.<sup>19)</sup> 특히, 서양 전통, 장묘교회의 형식을 참조한

19) 참고로, 긍정적인 어조는 아니었어도, 『기독교 중국원정』 제4권 6장에는 남경의 향가의 묘당을 주목하고 자세히 기술했다.



측면이 확연하고 주목할 만 한데, 장묘교회는 유럽의 기독교건축에서 흔한 전통이었다. 이 묘원이 조성될 당시는 서양 기독교역사상 가장 장대한 건축사업이기도 했던,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 사업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다는 점도 이 묘원 형태의 원천에 대해 또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킨다.<sup>20)</sup>

분명, 중국에서 초대 선교사를 중국의 전통 안에서 특별히 모시는 묘역은 예수회 선교과정에서 새로운 전기였다. 당시 인도 선교구가 고아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인 '선한 예수 성당(Basilica do Bom Jesus; 1594년에 시작하여 1605년에 완공함)을 세운 것을 생각하면,<sup>21)</sup> 중국 선교구가 리치의 업적을 하비에르에 버금가는 것으로 중국교구의 선구자로 기릴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법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경은 다른 문화적 배경에 놓여 있었다. 즉, 중국전통에서는 건물 안에 시신을 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집에 사람을 매장하지 않으며, 매장하면 그 곳에 다시 출입할 수 없음"에 대해 잘 알았다.<sup>22)</sup> 죽은 성인을 모시고 한 건물 안에 두려면, 거처와 무덤을 확실히 분리시켜 두되 가까이 두는 그런 식의 고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결과,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남쪽 거처, 즉 '공공의 집(aedes publica)은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공간적 틀이었다고 한다면, 후원의 묘지는 훨씬 더 서양적이고 차별화된 공간적 틀이었던 것이다.

이 묘지의 디자인을 주도한 롱고바르도 신부는 기독교의 신에 대한 중국식 명칭과 중국의 제사의식을 허용하는 전례문제에 있어서 리치와 견해를 달리 했던, 중국에서의 적응정책에 가장 크게 반대했던 예수회 회원으로 유명하다. 그는 리치의 적응주의 정책과 다른 선교방법에 대해 견해를 발전시켰고 리치를 계승하여 중국 예수회선교단의 수장이 된 뒤 자신의 견해를 공문화

20)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은 1590년에 완공되었다.

21) 프란치스 하비에르의 유해가 안치된 이 성당은 1986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2) 『기독교 중국원정』, 3권 5장. 알메이다 신부의 죽음에 대한 내용 중에서.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전례논쟁이 전개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sup>23)</sup>

반(反)적응주의적 입장의 롱고바르도는 그때까지 선교사들이 조성했던 적응적 선교환경과 차별되는 환경으로 이 묘역을 조성하려 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그는 '우상을 모시는 절과 다른 진정한 기독교의 진면목'을 좀 더 분명하게 구현하여 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이것을 기독교의 재현물로 제시하고 싶어 했을 수 있다.<sup>24)</sup> 그의 야심은 기독교적 성격이 뚜렷이 구현되어 있는 묘지를 조성하는 것 이상이었을 수 있으니, 어쩌면 그것은 선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성당건립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즉, 현재상태로 지붕 없는 유사(類似)성당으로 작동한 그 묘원은 미래의 성당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기독교건축, 특히 성당건축은 성인의 탄생, 행적, 순교와 관련된 기념비적 장소에 세워지고 또한 시간을 두고 거듭 개축 또는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중국 선교를 열어 제친 중요한 선교사의 첫 번째 공식 무덤은 그 자체가 미래 성당의 유력한 후보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경에 성당을 건립하는 일이야말로 초기예수회선교사들의 염원이었다. 리치 자신도 죽기 며칠 전까지도 성당(templum) 건축의 일을 고민했다.<sup>25)</sup> 하지만, 이 때 그가 어떤 성당을 상상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혹시 당시 인도에 들어선 '선한 예수 성당'이나 마카오의 '성 바오로 성당'(1602년 완공) 같은 유럽식 성당들을

23) 데이비드 E. 먼젤로, 이향만·장동진·정인재 역, 『진귀한 나라 중국』 (2009) 481, 각주 174 참고.

24) 롱고바르도 신부는 리치 신부가 북경에 공물을 바치러 갔을 때 소주에 머무르며 선교했는데, 1603년 4월 20일 롱고바르도 신부는 소주 근처 마을인 정촌에 세워진 기독교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했고, 미사 후 신부는 '기독교의 당과 세속의 우상들의 절의 차이에 대해'(inter Christianorum aedes, & profana simulacrorum fana) 강의했다.

25) "그날 오후 그는 고열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잠꼬대를 했다. 그 잠꼬대는 모두 충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머릿속의 것들을 말한 것이었다.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에 그는 신입교우에 대해, 성당(templum)에 대해, 중국 전도에 대해, 황제의 입교에 대해 말했다. 다음 날 머리가 맑아진 그는 종부성사를 요구했다."(『기독교 중국원정』, 5권 20장)

떠올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적응방식'을 띤 성당을 떠올렸을까?

온건한 적응으로 보기 힘든 과감한 시도를 실현시킨 룡고바르도는 살아 있을 때 마침내 1652년 중국 최초의 공식 성당인 선무문 천주당(지금의 남당 자리에 세워졌던 건물로서 소실되어 이후 재건되었다)의 건립까지 보게 된다. 즉, "집 벽 안에 사적인 성소(sacellum)"를 넘어 북경의 선무문 바로 안쪽에 중국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공식 인가한 성당이 지어졌는데,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2~1666)이 리치 이후의 예수회 선교사업을 기록하고 보고한 책인 『중국에서 신앙발전의 역사적 관계』(*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에는 이 천주당의 건립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담 샬 자신이 청의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3~61)로부터 윤허를 받은 경위, 땅과 자재를 구하는 비용에 있어서 고위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1650년에 성당건립을 진행하는 일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건축물의 상세한 묘사와 그 건축이 선교에 끼친 역할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성당에서 장려하게 거행되는 성찬과 미사는 선교사들과 새 신도들의 신앙 활동을 강화했고, 제대에는 성인으로 시성된 프란치스 하비에르 같은 예수회 선교사들을 모셨다. 공간적 장려함은 종교적 감동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중국 최초의 성당이 리치의 묘지 자리가 아니라 북경 도성 안에 선교사들의 거처 자리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의 책에서도 관련된 사건과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도성 바깥보다는 선무문 바로 안쪽의 입지가 상징성과 실용성이 컸을 것이다. 또한, 이 성당은 입구 앞에 마당을 두른 점이라든지 내부의 세부장식 등에 있어서 중국전통의 요소와 결합된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념비적인 외부 정면, 세 개의 내부 통로(네이브 및 아일)와 제단 등, 기본적으로 유럽식 성당건축의 진면목을 지닌 건물로서, 외관상 북경 시내에서 눈에 띄는 당당한 경관을 내세웠을 뿐 아니라, 그것도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되었다.

## IV. 맺으며

초기 중국선교과정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의 문화배경에 유럽의 지식을 적응시켰고 그럼으로써 중국인 사대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응정책을 펼쳤다. 이 적응과정은 그들의 학술활동 뿐 아니라 그들의 선교환경 또는 건축물들과 관련된 활동에서도 확인된다. 중국황제로부터 선교사의 거처, 무덤, 나아가 성당건축에 대한 공식허가를 받는 것은 선교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얻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선교사들에게 중대한 사안이었고, 유럽의 독자들에게도 자세히 보고되었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선교환경을 조심스럽게 확장해 나아가는 와중에 리치 묘역을 건립한 사건은 선교사들의 치밀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하나의 도약이었다.

집, 묘지, 성당의 성격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지닌 리치 묘역은 초기 중국에 수회선교사들의 적응적 태도와 반(反)적응적 태도가 묘하게 중첩된 독특한 건축물군이었다. 이 묘역은 이후 전개되는 선교상황에 따라 선교사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제공했을 텐데, 그 성격에 대한 갖가지 추정은 롱고바르도의 선교입장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와 결합되면 더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리치 생애에 조성된 거처들이 중국의 거주 환경 안에 은신하듯이 품어져 있었다면, 리치를 이어 중국선교의 수장을 맡은 롱고바르도가 북경에 조성한 묘원은 중국의 거주 환경을 배후에서 크게 품는 도상을 했고, 이 도상이 이후 선무문 남당으로 이어져 뚜렷하고 과시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관찰로도 분명하다. 이후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적 활동과 그 적응적 성격도, 물리적 환경과 연관 지음으로써 더욱 온전하게 파악되리라 예상한다.

[첨부 열하일기(熱河日記)<sup>26)</sup> 제13권 양엽기(養葉記) 이마두총(利瑪竇塚)<sup>27)</sup>

부성문(阜成門)을 나와 몇 리를 가니 길 왼편에 돌기둥 4, 50개가 늘어서 있고 그 위에 포도시령을 얹어 포도가 한창 익어 있다. 세 칸 짜리 돌패루(牌樓)가 있고 좌우에 돌사자가 마주 앉아 있다. 그 안에 높은 건물이 있어 수직군에게 물어 보아 이마두(利瑪竇)의 무덤인 줄 알게 되었다. 서양선교사들을 동서로 나란히 묻었고 무덤 수가 모두 칠십이 넘었다. 무덤 둘레에 담을 쌓았는데 바둑판처럼 정방형이고 거의 3리에 이른다. 그 안이 모두 서양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명 만력 경술년(1610)에 이마두의 장지를 하사했고 무덤 높이가 수 장(丈)에 이른다. 봉분을 벽돌로 쌓았다. 시루 모양이고 사방으로 기왓장이 처마를 길게 뻗다. 바라보니 못다 핀 큰 버섯 같다. 무덤 뒤에 벽돌로 쌓은 육각형의 높은 집이 있다. 철종 같다. 세 면에 홍예문을 두었고 속은 텅 비어 있다. 비석을 세워 쓰기를 예수회선비 이공의 묘(耶蘇會士利公之墓)라 했다. 왼편 옆에 다음과 같이 작게 썼다. “리선생의 휘(諱)는 마두다. 서태(西泰) 대서양(大西洋) 이탈리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참되게 수양했다. 명 만력 신사년(1581년)에 바다를 건너 마침내 중화에 들어와 교를 펼쳤다. 만력 경자년(1600)에 북경에 와서 만력 경술년(1610)에 죽었다. 59년을 살았고, 그 중 42년을 교회에 있었다.” 오른쪽 옆에는 서양글자로 썼다. 비석 좌우에 아름답게 조각한 돌기둥(華表)을 세우고, 구름을 탄 용을 양각했다. 비석 앞에 또한 벽돌집이 있는데 그 위가 평평하여 돈대 같다. 구름 탄 용을 새긴 돌기둥들을 늘어 세워 석물로 삼았다[象設]. 제사 지내는 전각이 있고, 그 앞에 또한 돌패루와 돌사자가 있다. 탕약망(湯若望)[아담 샬]의 기념비다.

26) 조선 정조때의 북학파인 박지원이 44세 때인 1780년(정조 5년)에 청나라 건륭제의 만수절(萬壽節, 칠순 잔치) 때 사절을 따라 북경(당시 연경)에 간 내용을 쓴 견문기.

27) 한국고전번역원 종합DB자료에 의거함.

出阜成門。行數里。道左列石柱四五十。上架葡萄方爛熟。有石碑樓三間。左右對蹲石獅。內有高閣。問守者。乃知爲利瑪竇塚。而諸西士東西繼葬者。總爲七十餘塚。塚域築牆。正方如碁局幾三里。其內皆西士塚也。皇明萬曆庚戌。賜利瑪竇葬地。塚高數丈。甌築墳。形如甌瓦。四出遠簷。望如未敷大菌。塚後甌築六稜高屋。如鍔鍾。三面爲虹門。中空無物。樹碣爲表曰。耶蘇會士利公之墓。左旁小記曰。利先生諱瑪竇。西泰大西洋意大里亞國人。自幼眞修。明萬曆辛巳航海。首入中華衍教。萬曆庚子來都。萬曆庚戌卒。在世五十九年。在會四十二年。右旁又以西洋字刻之。碑左右樹華表。陽起雲龍。碑前又有甌屋。上平如臺。列樹雲龍石柱爲象設。有享閣。閣前又有石碑樓石獅子。湯若望紀恩碑。

## 참고문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2010), 『동서양 문명의 만남, 도전과 기회: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0.9.16~17)

데이비드 E. 먼젤로, 이향만 · 장동진 · 정인재 역(2009), 『진귀한 나라 중국』, 나남.

데이비드 E. 먼젤로, 김성규 역(2009),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휴머니스트.

마테오 리치, 신진호 · 전미경 역(2011), 『마테오 리치의 중국견문록』, 문사철.

황종렬(2003),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선교의 신학적 의의와 한계』, 『교회사 연구』 20.

Michela Fontana(2011), *Matteo Ricci: A Jesuit in the Ming Cour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Matteo Ricci, Nicolas Trigault(1615), *De Christiana expeditione apud Sinas suscepta ab Societate Jesu*, Augustae Vind.

Johann Adam Schall von Bell(1669), *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Ratisbonae.

**【Abstract】**

Aiming to review the generally accepted understanding of Jesuit accommodation in China, this article examines Jesuits' architectural works in China and how they created their environment through their works for their mission. Jesuits' missionary residences were not only the strongholds for survival and mission, but the places of re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of Christian ideas. The Jesuits revealed and hid their identities by deliberate manipulation of form, size, and equipment of their residences in response to Chinese acceptability. Furthermore, Matteo Ricci's tomb, the first official burial place in China for Christian missionary, was the culmination of Jesuits' early achievements. The meticulous political efforts of the Jesuit missionaries resulted in the grant of Ming emperor to build *Palatium Suburbanum*, a residence-tomb suburban complex. When carefully examined, the original *Palatium's* funeral garden, designed by Longobardo, contained an embryonic form of an European church proper, which reflects the ambitious, changing momentum in Jesuits' accommodation policies.

**【Keywords】** Jesuit, mission, environment, accommodation, Matteo Ricci, *Palatium Suburbanum*, tomb, church

논문 투고일: 2012. 03. 05

심사 완료일: 2012. 04. 05

게재 확정일: 2012. 04. 12